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류진아 (신라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성폭력과 피해자 2차 폭력 |
| 2.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 |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제1세대 여성작가로 활동한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통해 근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2차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소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가족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데, 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와 남편 등 가족 구성원들이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주로 축첩과 외도 행위로 나타난다. 남편 외의 가족에 의한 여성 폭력은 아버지나 시부모와 같은 부모에 의한 폭력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의 강제 조혼과 시모에 의한 며느리 폭력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가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가한 딸이 청상의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택에서 수절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는 여성을 단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모두 자신의 소설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성폭행 사건을 경험 한 여성들이 많고 또 나혜석, 김일엽과 친분이 있는 김명순 역시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또한 영향을 미쳤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다. 성폭력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요구한 이중적 성규범과 여성들에게만 강요해온 정절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절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나누어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게 비난을 가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 역시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분류되어 성폭행 이후 떠도는 소문과 비난이라는 2차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근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세 작가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여성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들 세 작가는 소설을 통해 성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말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개인적인 것과 사회구조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으며,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폭력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젠더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여성 폭력, 성폭력, 페미니즘, 가부장제, 외도, 축첩

1. 들어가는 말

폭력은 한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정신을 학대하거나 도덕적 보전물 또는 소유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권력관계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폭력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인간지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

나는 인간의 복수성(the human plurality)을 억압하고 궤멸하려는 전체주의 국가의 지배에서 나타나는 폭력으로, 이러한 폭력은 전체주의 시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대의 관료제 정부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집단의 정치성이 너무 약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되는 폭력이다.¹⁾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여지없이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과 폭력’이라는 주제는 사회학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관심 주제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여성은 대개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로 표상되어 왔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폭력 가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²⁾ 하지만 폭력의 행위만이 아닌 폭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에 의한 폭력과 남성에 의한 폭력은 분명 다른 원인과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폭력과 성차(sexual difference)의 문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성차에 원인을 둔 폭력은 미시적으로는 가정 내 부부의 권력관계와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 남녀의 권력 질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³⁾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중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한 여성 통제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출생과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성별화되기도 하지만, 당대의 문화가 그 성에 부여하는 이차적 의미를 육체에 각인하며 살아간다.⁴⁾

1) 한나 아렌트, 김정환 역,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94면-132면 참조.

2) 대개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타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항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의 전이와 순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나 복수의 형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이순희, 『현대 서구 여성 소설에 나타난 폭력담론』, 『현상과 인식』제22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8; 김미영, 『소설 속 성폭력 재현 양상 연구』, 『국어문학』제54호, 국어문화회, 2013. 참조)

3) 이순희, 『폭력의 상상력과 20세기 여성소설-비폭력에서 대항폭력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제9권 1호, 영미문화회, 2001, 127면.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절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여성의 성을 통제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부계 혈통유지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해 남성의 성적 일탈을 야기했고, 기형적인 남성의 성적 욕구로 인해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절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 사회의 순수 혈통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여 조혼과 같은 폐습을 탄생시켰다. 또한 과부가 된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고 재가의 금지와 함께 수절을 강요하였다. 여성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개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개가를 주장하는 담론들이 형성되면서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가 완화되는 듯하였으나 개화 사상가들이 주장한 청춘의 개가와 자유연애는 담론일 뿐 실생활에서 여성의 자유연애와 개가는 환영받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정절을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가부장제 남성들의 일탈적 성적 행위가 한몫을 차지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직접적인 행위가 폭력으로 드러나는 강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의한 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시각적, 언어적) 등을 모두 성폭력⁵⁾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근대는 자유연애 사상의 유입으로 일부의 여성들이 자유연애를 실천하며 데이트 중에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증가했다. 이 경우 여성들은 남성의 데이트 요청에 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취급되었으며,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정숙한 여자’와 대비되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로 간주되었다.

4) 조현순, 『몸과 여성 정체성』, 『인문학연구』제5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222면.

5) 성폭력은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며 성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1세대 신여성이며 작가로 활동했던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중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⁶⁾을 침해하는 성폭력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 성에 대한 폭력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파괴성을 지닌다. 특히 정절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시대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제2, 제3의 폭력을 당해야 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던 근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소설에서 밝히고 있는 여성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 성폭력의 원인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 소설의 창작을 통해 사회참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 작품에 대한 연구의 폭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

2.1. 남편에 의한 폭력

오랜 동안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되다가 1980년대 이후 여성주의운동가들의 활동에 힘입어 가정 내의 폭력이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폭력은 가부장이라는 가정

6)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 또는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근대에는 여성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성적자율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성적추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들에 의해 폭력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내 절대적 권력을 가진 가장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아내를 통제하는 권력 작동 방식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에서 배우자의 폭력은 성적·신체적·언어적으로 강압적 행동을 통해 배우자를 통제·구속하려는 것을 말한다.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러한 폭력은 역사적 근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져왔으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⁷⁾ 조선시대 시신검안 소견서인 검안(檢案)에서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하였다.

폭력이란 대개 열등감을 보상하거나 실망감을 해소시키거나 무능력을 초월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나타난다. 성난 사람의 폭력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 힘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려 함으로써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감을 은폐하려고 든다.⁸⁾ 근대에는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관습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 폭력성이 은폐된 축첩과 외도 또한 여성에게 정서적 고통을 안기는 폭력으로 볼 수 있다.

김명순의 소설 『의심의 소녀』(『청춘』, 1917)에서 가희 어머니는 피서차 평양성을 방문한 조 국장의 눈에 띄어 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지만 딸 가희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첩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 조 국장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삶을 살다가 결국 병든 몸으로 자살을 하고 만다. 가희 어머니는 자살을 하기 전 남편에게 사랑도 구해보고 자유도 구해보고 이혼도 요구해 보지만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에 조 국장은 더한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다. 결국 가희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몬 것은 남편의 외도와 축첩, 그리고 학대 등의 폭력 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7) 특히 전근대 한국 가정에서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라는 속담이 생길만큼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폭넓게 용인되고 있었다.(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민음사, 2014, 170면.)

8) 프랑수아 스티른, 이화숙 역, 『인간과 권력』, 예하, 1989, 14-19면 참조.

김명순의 소설 『돌아다볼 때』(『조선일보』, 1924) 역시 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남자 주인공 효순은 우연히 알게 된 신여성 소련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구여성인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던 이들의 행위는 소련이 자신의 고모(류애덕)의 강요에 의해 최병서라는 이와 결혼하게 되면서 일단락되는데, 그 이후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은 소련에게로 이어진다. 효순과 소련의 과거를 아는 남편(병서)은 소련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일삼는다.

소련을 공경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집을 상관하고 집을 비웠다. 그러고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처럼 애써 가정 일을 힘쓰는 소련을 학대하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 또 병서의 모친은 이따금씩 와서 그 아들의 애정을 소련 때문에 갖긴 듯이 소련을 들볶았다.⁹⁾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동석한 자리에서 신여성인 소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송효순의 행위나, 효순과의 과거를 알면서 소련과 결혼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아내인 소련을 정서적·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최병서의 행위는 남성의 타자이며 종속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삼종지도’의 관습으로 인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인식하면서도 그 폭력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김일엽의 소설 『자각』(『조선문단』, 1926)에서는 결혼 후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간 남편이 일본에서 신여성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던 태도에 변화를 보이며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아내는 독한 결심을 하고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에서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소설의 마지막에 여주인공은 전남편이 자신과의 이혼을 후회하며 다시 합칠

9) 김명순, 송명희 편역, 『돌아다볼 때』, 『외로운 사람들』, 한국문화사, 2011, 97-98면.

것을 청해오지만 전남편에게 단호하게 거절의 편지를 보내고 마음을 다 잡아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

나를 끈에 맨 돌맹이인줄 아느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백 계집을 하다가도 10년을 박대하다가도 손길 한번만 붙잡으면 헤헤 웃어버리는 속 없는 여자냐. (중략)

이왕 사람이 아닌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인제는 한 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값있고 뜻있는 생활을 하여야겠나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려나이다.¹⁰⁾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주로 축첩과 외도행위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남성들의 축첩과 외도행위가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유지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된 성규범으로 인해 여성들은 남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2.2. 그 밖의 가족에 의한 폭력

남편 외의 가족에 의한 여성 폭력은 아버지나 시부모와 같은 부모에 의한 폭력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의 강제 조혼과 시모에 의한 며느리 폭력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가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가한 딸이 청상의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수절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는 여성을 단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

시부모에 의한 폭력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며느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시어머니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폭력이 발생한다.

김명순의 소설 『조모의 묘전에』(『여자계』, 1920)의 서녀 출신의 주인공 춘

10) 김일엽, 김우영 엮음, 『김일엽 전집』, 2012, 170-171면.

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할머니가 물려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기다가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자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한다. 자신을 강제매매 혼 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보지만 그 또한 뜻대로 되지 않자 시름시름 앓다 자살과 같은 죽음을 맞는다. 춘채가 강제매매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춘채의 입장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이는 신분제 질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와 첩의 위계는 존재하고 있어 시녀인 춘채의 설움과 고통은 날로 더했다. 결국 춘채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마를 받아들이며 죽음으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나혜석의 소설 『경희』(『여자계』, 1918)와 『어머니와 딸』(『삼천리』, 1937)에는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가 등장한다. 『경희』의 주인공 경희는 일본 유학 중 집에 다니러온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로 인해 괴로워한다. 아버지는 경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를 공부를 많이 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일본으로 보내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하지만 경희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결혼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삶보다는 몸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남성의 타자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다.

『어머니와 딸』에서 영애 역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어머니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 영애의 어머니는 부모라는 이유로 딸의 미래를 결정하고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집에서 나가라며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다. 영애의 어머니가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딸을 향해 심청이까지 들먹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가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힘이 부정되자 폭력이 발생한다’¹¹⁾는 프링의 말처럼 이들 부모는 모두 집안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신의 말이 수용되지 않자 폭력

11) 줄리앙 프링, 『정치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a politique?』, Seuil, politique, 1965, 133면.

을 동원해서 상대방, 즉 딸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김일엽의 소설에도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채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느 소녀의 사』(『신여자』, 1920)의 여주인공 명숙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언니를 나이 많은 남자의 첩으로 보내고 자신도 돈 많은 남자의 첩으로 보내려는 부모에게 저항하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모와 신문사 기자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다. 명숙은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서 자살을 하는 자신의 행동이 불효인줄 알지만 자신을 돈 많은 남자의 첩으로 보내려는 부모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부모님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긴다. 신문사 기자에게 남긴 유서에서는 조선에는 자신과 같이 부모에 의해 강제 매매혼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며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만천하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명숙의 자살을 통해 부모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 매매혼이 어린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1차적으로 가족에 의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윤리적 인습에 얽매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조차 갖지 못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윤리적 규범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폭력이 된다고 말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보편적 윤리는 역사적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폭력이 되며, 윤리적 규범은 공간적으로 전체화될 때도 폭력이 된다.¹²⁾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 밖에도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정절을 유린하는 성폭력 행위와 가부장제의 정절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절을 잃은 여성에 대한 비난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

12)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05, 42-48면 참조.

3. 성폭력과 피해자 2차 폭력

3.1. 성폭력

전통적인 유교의식을 깨트리려고 하던 근대에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이었다. 특히 1920년대 신여성들은 자유연애와 결혼 그리고 위계에 의한 관계가 아닌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상으로 삼았다.¹³⁾ 또한 이때는 엘렌 케이의 연애론이 도입되면서 남녀 간의 교제가 새로운 사회 풍조로 등장 하였다.¹⁴⁾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 한 엘렌 케이의 연애론은 당시 기존의 윤리에 반하는 새로운 남녀관계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자유연애 사상의 대두와 실천은 전통사회의 남녀관계에 대한 비판을 의미했다. 연애는 신성하며, 지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관념은 1920년대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지식인에서 일반으로 전파되어 갔다. 이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연애를 우상시 하는 것은 견제했지만 한편으로는 연애는 자유롭고 신성하다는 교리를 설파하는 데 급진주의자들과 보조를 맞추었다.¹⁵⁾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은 물론 자유연애가 시대의 조류로 성행하던 시기에 천도교에서 활동하며 청년운동·문화운동을 통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기전은 <신여성> 등 문학잡지의 기고를 통해 조선여성의 해방을 위해 근대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남녀관계의 재정립을 주창했다. 그는 1920년대 전반에 남녀 간의 교제를 말하며 남녀교제에 있어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세태를 개탄한다.

“남녀라 하면 문득 성교를 연상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생각이며,

13) 이화형, 『한국 문화 속의 근대적 여성상 재고』, 『경기사학』 제5호, 경기사학회, 2001, 336면.

14) 김경애, 『근대 남성지식인 소춘 김기전의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12호, 2010, 135면.

15) 김경일, 앞의 책, 129면.

여자가 남자에 대한 생각"인 상황, 즉 "성에 대한 단련이 없으며 이해가 없고, 오직 성에 대한 주립뿐이 있"는 현실에서 "남녀 간의 인격적 교제, 다시 말하면 엄정한 의미에서의 성적 교제"는 불가능하다.¹⁶⁾

김기전은 성적쾌락을 위한 관계와 만남이 아닌 남녀가 각기 경건한 마음으로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하며, 서로의 만남에는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지식인들이 남녀의 연애와 관련된 글을 문예잡지에 기고하는 등 이 시기는 남녀의 애정문제가 남녀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남녀의 연애와 함께 담론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 여성의 정조에 관한 문제로 이는 자유연애를 실천한 신여성들의 행동을 전통적 유교의 가부장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방탕하고 음탕한 것으로, 신여성은 전통적 유교사상을 부정하는 신지식인의 임무이행자로 보는 등 남녀의 연애와 여성의 정조를 두고 전통과 개혁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렇듯 그동안 전통의 사슬에 매여 있던 여성이 자유연애를 수용하며 꿈꾸던 연애와 가부장적 전통을 유지하며 여성의 육체성을 중시하는 남성이 생각하는 자유연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자신의 소설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 김명순 역시 데이트 중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 또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또한 신여성의 연애와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받는 주위의 비난에 대해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절 자유연애를 하는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당시 남성작가의 연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조를 유린당하거나 유혹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¹⁷⁾ 남성작가의 소설에서는 깨끗한

16) 김기전, 「남녀간의 교제는 엇더케할 것인가」, 『신여성』 제1권 2호, 1923, 6-7면.

17) 염상섭의 「제야」(『염상섭전집』 9권)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성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여성은 남편의 용서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유서를 써야

연애를 추구하는 남성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여성의 천박함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소설과 문예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성폭행 당한 여성이 품행이 바르지 못했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가하면, 성폭행을 행한 남성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¹⁸⁾ 그러나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자신의 소설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피해 상황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며, 당시의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매도시키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소설에서는 성폭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들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성폭력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명순은 자전적 소설인 「탄실이와 주영이」(『조선일보』, 1924)에서 이복 오빠의 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탄실이의 상황을 이야기한다.¹⁹⁾ 여주인공 탄실이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남자인 오빠의 입을 통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을 가진 남성인 오빠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을 것이고, 세상 남자

했다.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창조』 제5호)에서도 아내가 있는 K는 상대 연인에게 정조를 요구했다. 그리고 방인근의 「마지막 편지」(『조선문단』 제 12호, 조명희의 「R군에게」(『개벽』 제66호), 백야생의 「일년후」(『창조』 제6호), 전영택의 「운명」, 『창조』 제3호)등은 모두 여성의 정조를 문제 삼은 작품이다.

18) 김기진과 염상섭, 김동인 등은 자신의 글에서 김명순의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김명순을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김명순이 퇴기며 첩의 딸로 태어나 퇴폐적인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무절제하고 방종하며 타락한 여자라고 매도한다.

19) 김명순은 일본 유학 중 일본 군 소위 이용준에게 데이트 성폭력을 당하고 그와의 결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등 세상을 비난을 받는다.

들이 모두 자신을 욕해도 비록 이복 오빠지만 오빠만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김명순은 소설 속에서 탄실이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오빠의 입을 통해 ‘그 애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오해를 받는 것은 전부 허무한 일일 뿐 아니라 악한 남녀의 모함’이라 말함으로써 성폭행을 당한 이후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비난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오빠가 모든 것을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것을 권유하자 ‘그런 착한 여자’인 자기에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몸을 다시 다른 사람과 결합하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명순은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욕해도 자신은 당당하며, 신성하다고까지 말한다. 또한 김명순은 소설에서 자신의 변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남자들은 대개 일본 말을 배워 가지고 일본 사람 통역도 하고 또 전에는 꼭 영남사람만 베풀하던 것을 전쟁 이후로는 북쪽 사람들도 여간한 무관의 지위를 얻어서 …… 그래서 제일 첫 영화로 기생을 마음대로 수청들이고, 또 남의 집 유부녀라도 권리로 뺏어다가 첩을 만들었다.²⁰⁾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패전국의 여자들을 강간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공표하는 것처럼 고위직에 오른 남자들이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여성들의 성을 유린하는 경우²¹⁾가 종종 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그 곳 제일의 기생에게 수청을 받는 행위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패전국의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여성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김명순은 『탄실이와 주영이』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진실

20) 김명순, 앞의 책, 236면.

21) 수잔 브라운 밀러,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43-69면 참조.

을 밝히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부정한 여자라는 멍에를 벗고 싶어 했다. 김명순은 소설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결국 남성들의 욕망의 노리개였고,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던 바는 이루지 못하고 언론과 실생활에서 타락한 여자라는 멍에와 함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1920-30년대 사회는 성폭력마저 간통으로 간주되던 시기였다. 당시 혼전 순결은 여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미덕처럼 생각되었고,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문화와 혼전 순결이라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는 양립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남녀에게 똑같이 혼전 순결이 요구된다면 ‘혼전 순결’의 요구를 억압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남성들은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자유연애를 택한 여성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이 허다했다.²²⁾ 심지어는 성폭력의 피해자는 타락한 여자라는 오명을 안고 비난 받았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았다. 여성의 자유연애와 ‘영육일치’의 육체 해방 논의가 풍미했던 근대에도 여성의 성을 단속하면서 여성의 육체는 여성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폭력적인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었다.²³⁾

나혜석의 소설 『원한』(『조선문단』, 1926)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자란 이 소저가 남편을 잃고 시부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처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과부가 된 이 소저는 앞집에 사는 박 참판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그 후 버려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발견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몸을 ‘빨간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저는 자신 안의 욕망을 발견한 이후 밤마다 박 참판의 방을 몰래 찾아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시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소설에서 작가는 이례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성적 주체로

22) 전봉관, 앞의 책, 211-212면.

23) 서은경, 『1920년대 여성작가의 연애소설에 나타난 배신모티프 연구』, 『돈암어문』 제26호, 돈암어문학회, 2013, 224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남성들의 성적 대상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여성이 성적 주체로 행동했을 때 사회는 그 여성에게 가문에서의 퇴출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던 이 소저는 박 참판의 첩으로 들어간다.

『원한』에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대표적인 인물로 박 참판이 등장한다. 박 참판이 이 소저를 성폭행한 이후 ‘인제 갈 곳이 없으니 내게 올 데가 어디 있으랴’ 생각하며 여성을 굴복시킨 승자로서 여유를 부린다. 하지만 박 참판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달 후 여고생 나이의 앓된 소녀를 다시 첩으로 맞아들이고 이 소저는 마님의 몸종으로 전락한다.

이 소설에서는 경제적 권력과 사회적 권력, 성적 권력을 갖춘 나이 든 남자가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저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댁에서 쫓겨나 박 참판의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그 누구도 박 참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는 정절의 의무를 강요한 것과는 달리 남성에게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성적 일탈을 용인했던 사회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엘렌 케이의 사상을 이어받아 신정조론을 주장한 김일엽은 소설 『순애의 죽음』(『동명』, 1923)에서 순애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아는 언니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서간체로 쓰여진 이 소설은 자살한 순애와 친분이 깊은 언니가 순애의 죽음을 확인하고 S언니에게 사건의 정확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성폭력 가해자는 ‘그리웁고 원망스런 잡아 뜯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K라는 남자’로 그는 ‘여자를 대하면 짐작은 체 존경하는 체하는 얼굴 뻔뻔한 이’로, 소설 속 화자는 순애를 죽게 한 그 남자도, 모든 여성을 죽는 것보다 더한 압박과 고통을 주는 남성도 시치미를 뚝 떼고 유들유들하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야수 같은 남성에게 농락’ 당하고 그 충격으로 자살을 선택한 순애는 ‘천만 남성 중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남성이 있겠지마는 그런 남성을 만

날 기약이 없고 남자 분위가 된 이 사회, 남자가 가장(家長)이 된 이 가정에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심한 불평을 잊기 위해 세상을 떠난다는 유서를 남긴다. 순에는 '짐승 같은 놈', '더러운 놈'으로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지칭함으로써 자신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린다. 그리고 '절대의 힘을 다해 저항하였으나 정조로 인격으로 K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는 말로, 작가는 여성들이 믿었던 남성에게 정조를 유린당하는 것이 단지 육체를 짓밟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혼까지도 짓밟혔음을, 그래서 그 행동이 쉽게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작품 속 인물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 당시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결과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타락한 인생을 걷는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영채가 그랬고, 채만식의 소설 『타류』에서는 초봉이,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서는 복녀가 사회구조적 폭력의 희생양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소설에서는 폭력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을 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여성에게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절되어야 함에는 동의할 하더라도 왜 폭력이 나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하부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피해자는 그 속에서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폭력의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행동을 나쁘게 인식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피해자의 불복종과 사회의 통념상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합리화한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은 폭력, 그것이 성폭력일 경우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폭력은 한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이 약화되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대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다. 하지만 김일엽, 나혜석, 김명순의 소설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육체는 물론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나 비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놓았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자살이나 성폭력 사건 이후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족의 비난을 받으며, 은둔생활을 하거나 기혼자의 경우 시댁에서 죄인으로 쫓겨나야 했던 소설 속 인물들은 작가에 의해 가공된 인물이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피해를 입은 인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자신의 상황과 당 시대 여성들의 상황을 소설 속에 그림으로써 여성에 대한 억압과 남성들의 횡포, 그리고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 억압과 폭력의 부당함을 깨닫고 불합리한 현실의 상황을 바꾸어 가길 간절히 원했다.

3.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

남녀에게 차별적인 이중적 성규범은 여성에게는 정절의 의무를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정절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유교적 관습을 강조하던 조선시대 이후 개혁과 계몽·자유연애가 성행하던 근대에도 여전히 여성에게 정절이 강요되었으며 청춘의 개가도 불허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불허되던 개가가 남성에게는 허용되었고 이 시기에도 남성의 축첩은 여전히 성행했다. 축첩에 대한 비난은 첩을 둔 남자에게보다 첩이 된 여성에게 더했으며, 1920년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한 신여성들이 연애 이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돈 많은 남자의 첩이 되는 과정에서 신여성들은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육체적 타락은 여성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비난으로 이는 자유연애 사상과 대립되는 것이다.

1920년대 자유연애로 신지식을 습득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기존 봉건사회에서 학습된 정조관이 부정되자 일각에서는 개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대의 자유연애와 정조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여성의 정조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조에 대해서도 공론화시켰다. 정조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보수파와 정조

관념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²⁴⁾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정조를 유린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않았다. 또한 성폭행을 당해 정조를 빼앗긴 부녀자는 벌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일방적인 폭력 피해가 아닌 화간으로 의심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열녀(烈女)의 식이 강조되면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도 여성은 이를 이유로 자결하도록 중용되었다.²⁵⁾ 근대에도 근대법의 도입으로 성폭력 등 정조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1920-30년대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소송은 많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명예실추의 죄를 물어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⁶⁾

이렇게 여성이 정조를 유린당하는 성폭력 사건은 자유연애의 유행으로 더욱 많이 발생했으며, 근대법에 기대어 정조침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정조를 유린당한 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난관을 타개해야 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정조유린을 당한 책임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있으며, 정조를 유린당한 여자는 원래부터 방탕한 여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행이란 힘의 논리가 작용된 난폭함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의한 상처와 동일하지만 그 상처가 피해자, 즉 희생자에게 수치심을 각인시키고 인격을 훼손시키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

24) 연희전문 학생 최활이 『동아일보』에 「余의 혼인관」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유영준이 그에 대한 반박문을 중앙일보에 발표하면서 정조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후 다시 光山이 동아일보에 「신여성과 정조문제」라는 글을 게재했고, 유영준이 「光山씨의 신여성 정조관」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게재하여 光山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활 또한 양자를 비판하면서 「정조문제에 대한 답변수칙」이란 글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였다.(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과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3, 265.)

25) 강명관, 『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참조

26) 소현숙, 앞의 글, 270면.

어 놓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²⁷⁾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큰 상처를 입는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피해자의 평소의 행실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유발론의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보기도 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폭력 피해 이후 주위 사람들에 의해 또 한 차례 폭력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성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²⁸⁾ 이들은 주위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성폭행을 당한 당시의 피해보다 더 수치스러운 2차 폭력 피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한다.

김명순은 자전적 소설인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동정을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 분명한 짐승 같은 것에게 팔 힘으로 빼앗기었다하면, 시방도 바로 듣지 않고 내 누이만 불야성을 가진 여자도 아니……’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문란한 여자, 부도덕한 여자라고 보고 있음을 개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 김명순은 소설에서 ‘금욕주의자’²⁹⁾, ‘천한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김명순은 자신의 소설들을 통해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더욱 거세게 비난했다.³⁰⁾

김기진은 1924년 『신여성』11월호에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게재하면서 그녀의 불륜에 초점을 맞추어 사생활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김명순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같은 잡지사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 김기진 외에도 천도교 지식인들이 발행한 잡지인 『개벽』은 1921년 김명순을 지칭하는 ‘김양이 독신주의자라고 하지만 혼인날 신랑이 세넷씩 달겨들가봐, 독신생활

27) 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41-42면 참조.

28) 변혜정, 『성폭력사건들이 ‘개인화’된느 것에 대한 우려』, 『여성이론』, 여이연, 2009, 224면.

29) 김명순, 앞의 책, 337면.

30) 서정자, 『디아스포라 김명순의 삶과 문학』, 김명순 전집, 푸른사상, 2011, 45면.

을 하게 된 독신주의자, 피임법 알려주는 독신주의자'라고 기술함으로써 김명순이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³¹⁾ 앞서 김명순이 소설에서 이야기한 '금욕주의자'와 『개벽』에 한 남성이 기고한 글에서의 '독신주의'는 분명 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명순은 독신주의자가 아닌 '정숙한 여자'로 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 여자 중 한사람이다. 그는 이응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세간으로부터는 타락하고 부정한 여자,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다. 김명순은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방진 여자'³²⁾로, 기생출신의 첩의 딸이라는 그녀의 출생은 보호받지 못할 여자, 비난해도 되는 여자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 모든 공개적 비난은 여성들에 의해서가 아닌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김명순을 비난한 이들 또한 자유연애를 실천한 신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당대의 현실이 여성들에게는 자유보다는 구속을, 권리보다는 책임, 보호보다는 비난을 하고 있어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여성들에게는 삼중고의 세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엽의 소설 『순애의 죽음』에서 순애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역시 정절을 잃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을 한낱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는 당시의 사회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애는 데이트 중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감히 자신의 입으로는 발설하지 못할 만큼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녀는 결국 죽음 이후 유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에게 불평등적이며 폭력적인 사회현실 속에서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남녀에게 평등한 사회가 도래하길 꿈꾸며 자유주의페미니즘을 실천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런 이유로 남성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난받고 비운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설의 창작을 통해 여성에게 폭력적인 사회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발하였다.

31) 김경애, 앞의 글, 44면에서 재인용.

32) 김경애, 위의 글, 42면.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와 피해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을 통해 성폭력이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성폭력 행위의 결과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성을 지닌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요구한 이중적 성규범과 여성들에게만 강요해온 정절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폭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유지를 위해 행해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이루어진 여성 폭력은 가해자의 행위 양상을 살펴보는 데서 더 나아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폭력 피해를 당할 때의 상황과 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의 심리적인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말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개인적인 것과 사회구조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으며,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폭력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근대 시기 폭력의 피해 여성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소설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당시 자유연애의 실천을 통해 정조를 유린당하고도 방탕한 여자, 타락한 여자라는 오명을 써야했던 여성들을 진정한 피해자이며 희생자로 바라볼 수 있게 근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폭력에 노출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근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이며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을 때 완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명순, 송명희 편역, 『외로운 사람들』, 한국문화사, 2011.
김일엽, 김우영 엮음, 『김일엽 전집』, 2012.
나혜석, 이상경 편역,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2. 단행본

- 강명관, 『열녀의 탄생-가부장제와 조선 여성의 잔혹한 역사』, 돌베개, 200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7.
김동인, 『감자』, 문학과 지성사, 2006.
이광수, 『무정』, 북앤북, 2009.
서정자, 『디아스포라 김명순의 삶과 문학』, 김명순 전집, 푸른사상, 2011.
전봉관, 『경성고민상당소』, 민음사, 2014.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채만식, 『탁류』, 문학과 지성사, 2014.
로즈마리 퍼트남 통, 이소영역,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2000.
리타 펠스키, 심진경 역, 『근대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0.
수잔 브라운 밀러,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
학교출판부, 2004.,
_____,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05.
줄리앙 프뤼, 『정치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a politique?』, Seuil,
politique, 1965, 133.
프랑수아 스티른, 이화숙 역, 『인간과 권력』, 예하, 1989.
한나 아렌트, 김정환 역,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3. 연구 논문

- 김경애, 『근대 남성지식인 소춘 김기전의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12호, 2010.
- 김미영, 『소설 속 성폭력 재현 양상 연구』, 『국어문학』 제54호, 국어문학회, 2013.
- 김선옥, 『한나 아렌트의 폭력의 개념』, 『인문학연구』 제14호, 한림대 인문학 연구소, 2008.
- 김주리, 『여성주의 연구방법과 한국근대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6호, 한국현대문학회, 2008.
-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변혜정, 『성폭력사건들이 ‘개인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여성이론』, 여이연, 2009.
- 서은경, 『1920년대 여성작가의 연애소설에 나타난 배신모티프 연구』, 『돈암어문』 제26호, 돈암어문학회, 2013.
- 이승희,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역사』 제6호, 한국여성사학회, 2007.
- 이회형, 『한국 문화 속의 근대적 여성상 재고』, 『경기사학』 제5호, 경기사학회, 2001.
- 임순희, 『현대 서구 여성 소설에 나타난 폭력담론』, 『현상과 인식』 제22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8
- _____, 『폭력의 상상력과 20세기 여성소설-비폭력에서 대항폭력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9권 1호, 영미문학회, 2001.
- 조현순, 『몸과 여성 정체성』, 『인문학연구』 제5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222.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논

문, 2013.

4. 기타

김기전, 「남녀간의 교제는 엇더케할 것인가」, 『신여성』 제1권 2호,
1923.

김일엽, 「나의 정조관」, 『조선일보』, 1927. 1. 8.

【Abstracts】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Women

- Focusing on the Works of Kim myeong-soon, Na
hye-seok, and Kim il-yeop

Ryu Jin-a

This study examines the severity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modern women via focusing on the works of Kim myeong-soon, Na hye-seok, and Kim il-yeop, the first feminism novelists. Most of the assailants are parents and husbands in those works, which shows that the violences mainly occurred in the family system.

Husbands' violences in the works are shown as keeping concubines and committing adultery. Aside from that, women are also obligated to marry early and suffer from patriloical marriage, which shows the violence from father or parents-in-law. Also, when a woman becomes a widow, she is demanded to maintain faithfulness though she married for her family. Women are thought to be the ones who make sacrifices for the family, nothing else.

In the authors' works, some of main characters are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s. This 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victims at that time including Kim il-yeop and Kim myeong-soon.

Sexual assault is clearly a violence which infringes upon women's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ometimes took away victim's lives due to the guilt that they had failed to maintain chastity, which shows the double standard that the patriarchal society built on each gender. This

ideology categorized women into two groups, 'faithful women' and 'unfaithful women', and blam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s were included in the group.

The authors comprehended the violences as the issue of social structure rather than individual one and strived to eradicate violences against women in modern times. In this respect, they show willingness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rough their works. As the feminists say, 'The personal is political,' the individual and the structure cannot be separa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the violence issue from gender point of view.

Key words: violence against women, sexual assault, feminism, patriarchal system, adultery, concubinage

이 논문은 2016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